

I. 사업개요	4
---------	---

II. 추진경과 및 시상내역	5
-----------------	---

III. 수상팀 정책제안서	
[채우다] 금융교육 플랫폼 ‘채움’을 통한 충남형 평생금융교육제 구축	7
[배고파] 전통시장의 디지털 현대화 실현 및 인식개선을 위한 ‘너나들이’ 앱 출시	13
[고말] 충청남도 청소년 고민 상담 익명 커뮤니티 앱 ‘교환일기’ 개설	17
[20th] 청소년의 안전한 근로를 위한 ‘바론노동넷’ 구축	21
[자갈자갈]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 ‘아름드리 가게’ 지정 사업	24
[아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빛솔’] 충청남도 청소년 마일리지 ‘CYM’	29
[그린스타터] 청소년환경위원회 설치	33
[백순대]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123 안심순찰 프로젝트”	37
[스물넷] 균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42
[충남방법대] 바닥에서 불빛이 난다? [바닥 신호등]	46

IV. 에필로그	
소감 및 활동사진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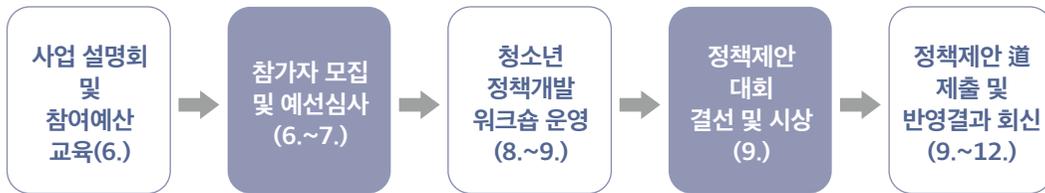


## 충청남도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 청소년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시민의 일원인 청소년의 의견 수렴 및 참여자치 학습과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자치역량 강화 및 능동적인 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참여의 장
- 예산편성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청소년이 정책 결정 과정이나 행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도모

# I 사업개요

- **행사명** 2021 충청남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
- **일시** 2021. 6. ~ 12.
- **장소** 충청남도, 본원 등
- **대상** 충청남도 내 청소년 및 관계자 321명
- **주요내용** 사업 설명회 및 참여예산교육, 청소년정책개발워크숍, 청소년정책제안대회
- **추진경과**



## ○ 2020 충청남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운영결과

순 위	수 상 팀	제안명
대상	봄동	'노동인권보호사업장'
최우수상	버니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도 함께 행복#반올림 충남'
	정○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
우수상	예산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예산효과	사교육비 절감효과! 동네방네 청소년전용시설을 활용한 학습마스터
	B.C.C	충청남도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
장려상	하나+50명	청소년증 하나로 충남청소년수련시설 유스페이스!
	일등할수있조	충청남도 버스와 지하철간의 환승 시스템 도입
	나비효과	청소년 인권침해 신고 및 정보공유 "암행어사 출도앱"
	커리어	학생 진로 교육 (직업 체험활동) 구체화 정책

## ○ 2020년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 반영결과

2020 충청남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우수작			도민참여예산 최종선정
훈격	팀명	제안명	예산배정액
최우수	정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	160,000,000원
우수	B.C.C	충청남도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	100,000,000원

# II 추진경과 및 시상내역

## ○ 2021 충청남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온라인 사업 설명회

- **일시** 2021. 6. 26.(토) 13:00 ~ 16:00
- **대상** 충청남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 관심있는 누구나
- **주요내용** 2021 충청남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사업 소개, 청소년참여예산 교육 및 질의응답, 유튜브 실시간 송출

## ○ 참가자 모집

- **접수기간** 2021. 6. 28.(월) ~ 7. 19.(월)
- **대상** 만 9~24세로 구성된 도내 청소년 개인 또는 모둠(4인 이내)
- **주요내용** '청소년이 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청남도'주제의 청소년정책 제안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cnbongsai@daum.net)

## ○ 예선 심사

- **심사명**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예선심사
- **일자** 2021. 7. 22.(목)
- **장소** 본원 3층 교육장
- **대상**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참가자 접수 31개팀
- **주요내용** 접수된 제안서 중 서류심사를 통해 10개를 선정
- **결과발표** 2021. 7. 27.(화) (본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 ○ 충청남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 비대면 정책개발워크숍

- **일시** 2021. 8. 23.(월) ~ 9. 3.(금)
- **운영방법** 비대면(온라인 워크숍 및 서면 자문·컨설팅)
- **대상** 총38명(결선진출10팀 청소년 31명, 관계자 및 본원 7명)
- **주요내용** 정책제안서 공유, 전문가 컨설팅, 제안서 최종안 작성, 결선 발표 준비

## ○ 정책제안대회 결선

- **행사명** 2021 충청남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 결선
- **일시** 2021. 9. 16.(목) 13:00~18:00
- **장소**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
- **대상** 총 102명(오프라인 50명, 온라인 52명)
- **주요내용** 팀별 제안서 발표, 2020 정책제안 모니터링 발표, 심사 및 시상 등

시간	내용		비고
12:00 ~ 13:00	참가자 접수		
13:00 ~ 13:30	인사말 및 행사안내		
13:30 ~ 15:00	팀별 발표(팀별 15~20분)		10개팀 심사위원 질의
15:20 ~ 17:00			
17:00 ~ 17:30	2020 정책제안 모니터링 발표	심사결과 집계	2021 충남청소년참여위원회 모니터링부
17:30 ~ 18:00	결과발표 및 시상식		
18:00~	정리 및 단체사진 촬영		

## ○ 정책제안서 도 송신 및 반영결과 회신

- **주요내용** 우수 정책제안서 도 제출 → 검토 → 검토결과 회신

## ○ 시상내역

순위	수상팀	제안명	상금(1팀당)
대상	채우다	금융교육 플랫폼 '채움'을 통한 충남형 평생금융교육제 구축	1,000천원
최우수상	배고파	전통시장의 디지털 현대화 실현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너나들이' 앱 출시	700천원
	고말	충청남도 청소년 고민 상담 익명 커뮤니티 앱 '교환 일기' 개설	
우수상	20th	청소년의 안전한 근로를 위한 '바론노동넷' 구축	500천원
	자갈자갈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 '아름드리 가게' 지정 사업	
	아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빛슬	충청남도 청소년 마일리지'CYM'	
장려상	그린스타터	청소년환경위원회 설치	200천원
	백순대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123 안심순찰 프로젝트"	
	스물넷	균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충남방범대	바닥에서 불빛이 난다? [바닥 신호등]	

## Ⅲ 수상팀 정책제안서



### 사업목적

팀명	채우다
팀원	박영서, 남유진, 배혜인, 이해원
제안명	금융교육 플랫폼 '채움'을 통한 충남형 평생금융교육제 구축

### ○ 청소년의 낮은 금융이해력

- 금융이해력이란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의미함.
- 금융감독원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을 조사한 결과 각각 56.6점, 40.1점, 45.2점으로 나타남. 동일문항으로 조사한 미국 고교생들의 금융이해력 지수인 51.9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한국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현실은 금융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뒤처지고있음.
- 20대의 금융이해력은 60대와 70대 다음으로 낮음(금융감독원, 2020). 성인이 되면 금융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것이라 여기지만, 청소년 시기의 낮은 금융이해력은 성인으로까지 이어짐. 즉 사회초년생들은 기본적인 금융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시작함.

### ○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의 한계

#### □ 질적 측면

-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금융교육은 경제의 기본 원리에 입각한 현상, 용어 등 입시를 위해 필요한 이론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짐.
- 타 과목에서 이자 등의 기초적인 개념만 다루고 있을 뿐, 금융지식을 가르치는 별도의 과목은 개설 되어있지 않음. 이로 인해 청소년이 실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금융지식을 접할 기회가 적음.
- 일방적인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교육내용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와 흥미가 떨어지며, 일회성 교육이거나 교육 후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효과성이 떨어짐.

#### □ 양적 측면

- 금융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규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이 차지하는 시간은 연평균 채 10시간이 되지 않음(금융위원회, 2019). 반면 미국의 경우 모든 주가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시켰으며,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됨.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교육의 경우 수도권 위주로 운영되어 청소년의 거주 지역에 따라 학습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상이함.

### ○ 청소년의 금융유해환경 노출

#### □ 청소년 고위험자산 투자 증가

- 최근 성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주식에 대한 청소년 투자자 수가 전년 대비 177.6% 폭증하여 총 27만 4천 명으로 집계됨(한국예탁결제원, 2020). 이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고위험자산에도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적인 금융지식 없이 한탕주의를 노리며 투자에 뛰어들거나, 주식투자를 하나의 도박으로 생각해 중독으로까지 빠지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주식투자 중독 상담은 이전까지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함.

#### ▣ 청소년 대상 금융범죄 증가

- 최근 SNS를 중심으로 대리입금, 대리투자, 불법대부 등 금융범죄의 유인대상이 금융지식에 취약한 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됨.
-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없이는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 소송에 나설 수 없으며, 소송비용이 피해 금액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이 소액금융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음.
-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사회 안전망의 부재로 금융사기와 불법도박 등 유해환경에 더욱 쉽게 노출됨. 충남 내 학교 안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비율은 2%인 반면, 학교 밖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은 9%로 나타남(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충남센터, 2020).

### ○ 현황 및 문제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지식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함.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금융교육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내실화가 요구됨.

#### ▣ 청소년 금융교육 수요 미충족

- 학교 밖 청소년
  1. 「학교 밖 청소년법 제 11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해야 함.
  2. 그러나 금융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0년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에는 학교 정규교육 과정 내 금융교육 강화 사항만 제시되어 있을 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대응책은 존재하지 않음.
  3. 최근 창원과 남양주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을 실시함. 창원 지역 꿈드림센터는 대학생 경제봉사단과, 남양주는 한국은행과 연계하여 청소년 경제자립을 지원함. 반면 충남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금융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학교 안 청소년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7조」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가 있음. 그러나 초·중·고 교육과정 중 금융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0.1% 미만으로 추산됨(금융교육학회, 2019).
  2. 흥성·태안·서산 중고등학교 재학생 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경제과목을 배운다고 응답한 학생 39명 중 해당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3%에 불과함.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용적인 경제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6.3%가 '그렇다'고 답함. 이는 청소년이 현행 경제 교육과정의 한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실용적인 금융교육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함.

## 사업내용

개념 중심의 기존 금융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실질 자립역량을 갖추기 위한 금융교육제도로, 퀴즈 및 RPG 게임 기반의 교육 플랫폼을 제공해 학습자들의 흥미도와 접근성을 제고함. 나아가 1사 1교 금융교육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해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평생금융교육제'로 발전할 것을 제안함.

### ○ 금융교육 플랫폼 '채움'

#### 1) 적용 개념

##### ▣ 게임기반학습 (Game-base learning, GBL)

- 게임기반학습이란 게임 내 학습과 현실의 학습 간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학습 결과물을 산출하는 교육방식임. 즉 게임에 대한 사용자의 능동적·참여적 태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학습 동기 유발 전략으로 활용 가능함.
- 학습자들은 크게 네 가지 형태의 학습을 경험함. 연습과 피드백을 통한 학습, 지식 습득을 통한 학습, 시뮬레이션을 통한 학습, 직접 문제해결방안을 탐구하는 학습이 이에 해당함. 학습자들은 게임 과정에서 학습 내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지식의 각인효과를 얻을 수 있음.

##### ▣ ARCS 모형

- Keller는 효과적 수업 설계를 위한 ARCS 수업 모형을 제시함. 이에 따르면, 학습자 동기 유발의 핵심 변인은 주의집중(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만족감(Satisfaction)임. 이는 각각 학습 내용의 매력도, 실생활과의 연관성, 학습자의 주도성, 학습을 통한 지속적 강화를 의미함.
- 본 팀은 게임기반학습의 효과적 적용을 위해 ARCS 수업 모형에 입각한 교수법을 제안함. 각 요소는 금융교육의 게임화를 통한 흥미 유발, 평생금융지식의 학습, RPG 기반 참여형 교육환경 조성,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

#### 2) 적용 기술

##### ▣ RPG (Role-Playing Game)

- RPG란 개인의 캐릭터를 조작하여 가상에서 주어지는 시련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게임 장르임. 사용자는 고도의 스토리텔링 및 사실적 화면 구현을 통해 게임 세계관에 대한 몰입을 경험함. 최근에는 마법천자문 교육용 게임, PlayEng, LG의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 등 게임기반학습의 형태로 활용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 및 중소벤처기업부 「2021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따르면, 정부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대한 기술 접목 교육 플랫폼을 육성할 계획임. 이는 RPG 기반 교육 플랫폼의 개발과 일맥상통함.

#### 3) 세부 제안내용

##### ▣ 퀴즈 및 RPG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 금융교육 플랫폼 '채움'은 퀴즈 및 RPG 기반 교육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을 동시에 제공함. 사용자가 자신의 지식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난이도의 학습 주제가 제시되며, 선택을 통해 교육을 진행함. 이때 기초교육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을 달성하여야 심화교육 참여 권한이 부여됨.
- 기초교육의 경우, 개념 플래시카드 및 퀴즈로 구성됨. 사용자는 플래시카드를 통해 해당 주제의 개념을 학습하며, 이후 퀴즈에 응시함으로써 자신의 이해도를 점검함. 이를 통해 해당 주제의 개념, 원리, 과정을 반복적으로 학습함.

- 심화교육의 경우, 기초교육에서 학습한 내용을 RPG를 통해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함. 즉 게임 세계관 내에 현실과 동일한 금융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사용자가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기존 금융교육의 이론 중심적 한계를 보완함.



그림 2 금융교육 플랫폼 '채움' 구체화 예시 (직접 작성)

#### □ 학습자 수준별 교육과정 구축

교육 시기에 따라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금융지식 수준이 상이하므로 초등, 중등, 고등수준별 교육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이는 자체 설문조사에 따른 학생들의 선호 및 금융감독원 권장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구성함.

비전	"평생금융교육의 실현을 통한 청소년 금융환경 보호 및 경제 자립 역량 강화"			
교육과정	구분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교육목표	올바른 금융 가치관의 형성 및 건전한 금융 흐름의 이해	실생활에 활용되는 거시적 금융지식 학습	실생활에 활용되는 미시적 금융지식 학습
	기초교육	▶ 금융 윤리의식 및 태도 ▶ 수입지출관리 ▶ 금융상품 종류의 이해	▶ 저축 및 투자의 기본 원리 ▶ 주택 금융의 이해 (개념 및 과정) ▶ 투자위험 및 금융사기 예방 ▶ 개인 재무 생활 진단 활동	▶ 자산 및 신용관리 방법 ▶ 주택 금융의 심화 (계약방법) ▶ 주택 대출 상품의 이해 ▶ 청년 금융 상품의 이해
	심화교육		▶ RPG 활용 가상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기초 내용의 가상 체험 도모	
적용예시	세부설명	▶ 중·고등과정의 수료에 위한 기본적인 개념에 해당하므로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통합하여 진행	▶ 실생활 금융지식의 개념 및 원리, 진행 과정에 대하여 학습 ▶ 최근 청소년 계층의 고위험 투자 진입 및 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실시	▶ 고등과정은 청소년 사회진출의 최전방에 해당하므로 계약 자격조건, 구비 서류 등 심화 내용을 학습 ▶ 실제와 가장 유사한 수준의 가상 체험을 실시해 안정적인 금융 자립 지원
	적용예시	고등과정의 18세 학생이 '주택 대출상품의 이해'를 학습할 경우 ▶ 기초교육 : 전·월세 대출 관련 상품의 개념 및 이해도 점검 퀴즈 풀이 ▶ 심화교육 : RPG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동산 전세 계약 체결 상황 재현 (이 과정에서 자격조건, 구비 서류 등의 지식에 노출)		

그림 3 금융교육 플랫폼 '채움' 권장 교육과정 (직접 작성)

#### 4) 실현방안

##### □ 충남경제교육센터로의 권한 위탁

충남연구원 산하부서인 충남경제교육센터는 경제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대상 경제교육을 지원함. 이에 충청남도는 학습자료의 개발 및 자문을 위탁하여 플랫폼의 전문성을 제고함.

##### □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적용

- 현재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은 충청남도, 학교 안 청소년은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으로 분류됨. 이에 해당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지역 꿈드림센터에 소속됨. 이에 충청남도는 지역 꿈드림센터에 플랫폼을 배부해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함.
- 현재 충청남도 내 꿈드림센터는 총 16개소임. 이에 충남경제교육센터 소속 강사 4인은 1인당 4개소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며, 담당 센터와의 일정을 조율해 자율적으로 교육을 진행함. 교육과정 이수시간은 총 16시간으로, 주 1회 2시간씩 8주에 걸쳐 진행함. 이때 초등과정은 2시간, 중등과정은 6시간, 고등과정은 8시간의 교육시간을 배정할 것을 권장함.

#### ○ 사업 연계방안

- '채움' 플랫폼은 충청남도 소관 학교 밖 청소년에 우선 적용하나, 도 교육청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연계 가능함.

주 제	협력대상	세부내용
학교 안 청소년 대상 교육	충청남도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안 청소년은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임. 이에 충청남도는 추후 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 대상을 학교 안 청소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li> <li>• 충청남도 교육청은 2019년부터 도내 중학교에 대하여 '충남형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함. 나아가 일부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프리(Pre)-포스트(Post) 자유학기'를 운영 중임. 충청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실시 학교는 한 학기동안 170시간 이상의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해야 함.</li> <li>• 이에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하여 연간 최소 16시간(1회차당 2시간*학기당 4회 실시)의 금융교육시간을 배정할 것을 요구해야 함. 이는 금융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기존에 배정된 정규과목 시수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로, 해당 시간에 플랫폼 활용 교육을 진행함.</li> </ul>
	1사 1교 금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사 1교 금융교육은 2015년부터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금융기관과 인근 초·중·고교가 결연을 맺어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현장 중심 교육정책임. 2021년 기준 충남 내 1사 1교 금융교육 결연에 가입한 학교는 총 464개교로, 해당 학교는 교내 경제동아리 활동 자금을 지원받으며, 강사비, 현장방문비 등 별도 비용 없이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li> <li>• 이에 플랫폼 '채움'과 기존 1사 1교 금융교육을 연계하여 현장 중심 심층교육으로 발전 가능함. 즉 '채움'에서 학습한 이론을 1사 1교 방문을 통해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기초-심화-심층교육으로 연결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함.</li> <li>• 1사 1교를 통한 심층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신청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할 수 있음. 가령 '채움'을 통해 전세 제도를 학습한 청소년이 심층교육을 신청할 경우, 1사 1교 결연 금융기관을 방문해 실제 전세 지원 제도를 살피고 관련 모의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임.</li> <li>• 학교 밖 청소년은 소속 꿈드림센터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학교 안 청소년은 소속 학교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함. 이는 결연 대상 금융기관에 전달되며, 교육 진행 최소 인원을 충족할 경우 여가시간 등을 활용해 기관 방문을 진행함.</li> </ul>

## ○ 소요예산

□ 금146,000,000원(금일역사천육백만원)

• 소요예산 세부내역

항 목	세부 산출 내역	
금융교육 플랫폼 '채움'	* 교육용 플랫폼 제작비	20,000,000
	게임 캐릭터 모델링 및 3D 콘텐츠 제작	700,000
	**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비	115,000,000
학습자료 내용설계	*** 금융교육 내용설계 자문 비용	2,500,000 (1인 기준)
교육 가이드 비용	**** 센터 방문 강사 비용	500,000 (1인 기준)
플랫폼 운영관리비	***** 유지 및 보수 관련 비용	800,000 (1개월 기준)
계	146,000,000	

\* 모바일 최적화 앱 제작, 모션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기능 구현을 위해 유동적으로 책정함

\*\* 국내 IT 비즈니스 플랫폼 'KMONG'의 제작비 단가 기준 중간값으로 산정함

\*\*\* 충남경제교육센터 내 3인을 섭외하여 내용 설계 자문 비용을 지급함

\*\*\*\* 충남경제교육센터 내 4인을 섭외하여 센터 방문 및 교육 비용을 지급함

\*\*\*\*\* 2018년 기준 충남 내 청소년 인구(만9-24세)는 360,660명으로, 해당 유저의 수용을 위해 유동적으로 책정함

## 기대효과

□ 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 기존의 금융교육은 이론 중심의 강의식 수업, 일회성 교육, 수도권 중심 운영 등이 한계로 지적됨. 충남형 평생금융교육제는 실생활 금융지식 중심의 학생 참여형 교육제도로,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높임.
- 이러한 금융교육의 질적·양적 강화는 도내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증진해 건전한 금융태도를 형성함. 나아가 청소년의 금융 유해환경 노출을 막고, 바람직한 경제 자립체로의 성장을 지원함.

□ 청소년 금융교육 소외 문제 개선

- 충남형 평생금융교육제는 온라인 금융교육을 제공해 지역 간 접근성의 차이를 개선함.
-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격차를 개선함.

□ 금융 선제적 충청남도 이미지 구축

- 충남형 평생금융교육제는 금융교육 격차에 기인한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함. 이를 통해 금융 선제적 이미지를 구축함.
- 더불어 올바른 금융지식을 갖춘 청소년을 양성해 청소년 대상 금융범죄를 예방함. 이를 통해 금융범죄 피해액과 피해복구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함.



## 사업목적

팀명

배고파

팀원

장소연, 이민희, 장재희

제안명

전통시장의 디지털 현대화 실현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너나들이' 앱 출시

## ○ 전통시장 이용 감소

- 청년층과 중년층의 관심 감소
- 청소년을 비롯한 청년층의 전통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위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
  - 수산물 냄새를 악취로 받아들임

## ○ 충남의 낮은 전통시장 선호도

- 전통시장의 오프라인 채널 이용 경험률, 최하위
  - 설문조사 결과 전통시장의 만족도는 편의점, 대형마트, 동네 슈퍼마켓, 단일 브랜드 매장의 5개 채널 중 최하위를 차지함.
  - 지역의 자원으로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주민의 선호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 ○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전통시장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관심이 높으나 전통시장을 사랑하는 주민이 많아지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
  - 주민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은 지역 관광자원으로 발전 가능
  -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가능

## ○ 현황 및 문제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 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시장 간의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등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 기업 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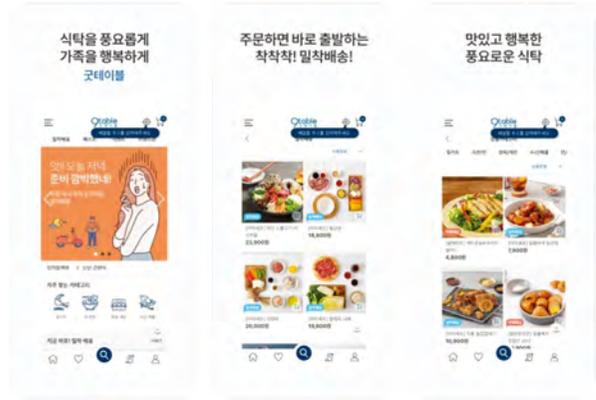
## ○ 기존 정책의 한계

□ 전통시장 배달앱

- 대부분 상인 혼자 운영하기 때문에 배달 주문이 많을 시 모두 수용하지 못함.
- 시장의 정체성 저하

□ 시설 현대화

- 충남 시장을 대상으로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임
- 시설 현대화는 시장이 지저분하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며 '디지털 현대화'도 합동(合同)되어 사람들에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수적임.



굿테이블 애플리케이션 화면, 이달의 추천 시장 알림 형식

사업내용

○ 월별 '이달의 추천 시장' 알림

□ 월별 로컬푸드 알림과 대표 판매 시장 알림

- 건강하고 신선한 로컬푸드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흥미 자극

□ 로컬푸드를 기준으로 이달의 추천 시장 설정

-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시장 중 대표하는 시장 몇 개를 꼽아 추천함
- 시장의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전통시장 AR 방 탈출 형식 게임



천안 중앙시장을 배경으로 한 AR 게임 화면의 시안

□ 전통시장의 지형지물과 역사를 기반으로 한 방 탈출 형식의 게임 제작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AR을 사용한 게임

- AR 서비스로 방 탈출 단서 제시, 자연스럽게 시장 내 관광명소 추천
- 전통시장의 지형지물에 3D 캐릭터를 비추어 캐릭터가 스토리를 이끔

□ 위와 같은 AR 서비스는 시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용성 확대를 이끔

- 시설 현대화와 병행되는 디지털 현대화의 내용임
- 시장도 트렌드에 맞추어 변화하는 곳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줌
- 시장을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곳이 아닌 하나의 관광지로서 볼 수 있게 함

□ 최근 지자체가 뛰어 들고 있는 메타버스 사업의 일종으로 시민들의 전통시장을 향한 관심 증대

○ 기존 정책과의 전환점

□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 감소

- 가게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음

□ 시장의 정체성 유지

- 시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증가로 시장에 방문하는 사람이 증가함
-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음

○ '너나들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필요성

□ 장노년층이 주로 활용하는 시장의 특성 전환 가능

- 기존 시장은 젊은 세대나 중년층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만 사용됨
- 비교적 넓은 세대에게 시장 홍보 가능
- AR 게임 서비스 등은 청소년을 비롯한 MZ세대의 흥미를 자극해 청소년의 시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심 증대 효과를 지님
- 방 탈출 프로그램 '대탈출'이 비드라마 TV 화제성 1위, RACOI 예능 부분 화제성 1위를 장악한 것으로 보아 방 탈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너나들이' 앱 실행 방안

□ 전통시장 내 지형지물 및 역사 조사

- 전통시장 내 지형지물 및 역사 조사를 통해 전통시장별 AR 게임 스토리 구축
- 각 전통시장의 특성 고려, 게임 진행 위치 설정

□ 앱 개발

- 앱 개발 및 연구
-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 앱 버전 다양화

□ 홍보 및 시행

-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 PPL 의뢰 및 지역 케이블 TV 광고 제작
- 서비스 유지 및 보수 기획가, 개발자 고용

○ 소요예산 총액

□ 금135,800,000원(금일억삼천오백팔십만원)

□ AR 앱 제작

- 총 74,800,000원
- 위치기반 AR 미션을 통한 코인수집/교환 게임 앱 제작 - 약 61,500,000
- AR 앱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관리자 기획 - 약 13,300,000

- AR 서비스 유지비
  - 총 12,000,000원
  - 정부 관광 안내 웹서비스 유지 & 보수 기획가, 개발자 (각각 1명) - 약 12,000,000원

- 홍보(광고) 내용 및 비용
  - 총 49,000,000원
  - 백종원의 골목식당 PPL - 약 40,000,000원
  - 케이블 TV 광고 (월)
  - 대전방송 약 3,000,000원
  - 충남방송 약 3,000,000원
  - 중부방송 약 3,000,000원

## 기대효과

### ○ 전통시장 접근성 향상

- 높은 접근성을 지닌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 활용
-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 방문객 증가로 인한 매출 증가

### ○ 지역문화의 전파

-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외국어 버전 앱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 다양한 언어로 충남의 시장을 소개하고 손쉽게 AR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앱을 통해 충남의 지역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림

### □ 관광객 유치

- 세계적 한류 열풍 및 외국인의 한국 문화 관심 증대의 배경
- 위의 상황적 배경에 전통시장의 디지털 현대화를 실현시킨 앱이 접목되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전통시장을 하나의 관광명소로 볼 수 있게 됨

### □ 전통문화 보존 가능

-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문화 또한 자연스럽게 전파되어 문화의 소멸 위기 감소

### ○ 청소년 교육 효과

#### □ 청소년 여가 공간 확대

-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음
- 폭력성이 강한 게임 대신 기존과는 다른 색다른 방식의 AR 게임을 즐기고 각 지역의 특색을 느낄 수 있음

#### □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 고취 가능

- 청소년들의 전통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시장은 지저분하고 악취가 남)을 다양한 체험 요소를 활용해 긍정적 인식(재미있고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음)으로 개선
- 방 탈출 프로그램 '대탈출'이 비드라마 TV 화제성 1위, RACOI 예능 부분 화제성 1위를 장악한 것으로 보아 방 탈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업목적

팀명	고말
팀원	김성훈, 한지수
제안명	충청남도 청소년 고민 상담 익명 커뮤니티 앱 '교환 일기' 개설

### ○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의 필요성

- 충청남도 청소년뿐만 아닌 전국 청소년들의 소통을 위한 전용 커뮤니티의 부재
- 일상생활 속 청소년들이 Wee-class, 전문상담 기관, 병원 등의 시설에 접근성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도움 기관을 찾을 수 있는 앱이 필요
- 청소년 연령층에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Instagram, Facebook 내의 자극적이고 해로운 매체의 접근을 줄이고, 소통만 이루어지는 공간 창출
- 스마트폰 사용량이 높은 청소년들이 홈페이지보다 앱에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는 경향을 반영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앱 제작의 필요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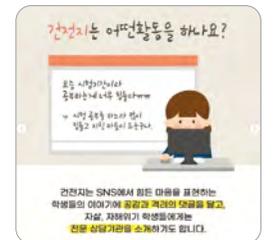
###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보고서 중 또래 상담 프로그램의 우수 사례 분석

- 2020년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소속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운영보고서 참고결과, 또래 상담 우수 사례 온라인 피티쇼의 진행을 통해 충청남도 청소년이 또래 상담뿐만 아닌 심리, 상담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도와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 또래 상담 및 상담으로의 진로를 희망하고, 관심이 많은 청소년에게 관련 분야 체험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파악되었음.



### ○ 지역 대학교 내에서 운영 중인 '건전지' 활동 우수 사례 분석

- 충청남도 내의 건양대학교 학생 상담센터 소속의 건전지라는 단체에서 같은 대학생들의 익명 소통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비밀게시판 내 자살위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위로의 댓글과 전문상담 기관 소개, 아침 모닝콜 등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 대학생을 위한 건양대학교 건전지의 활동 사례들을 분석하여 대학생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청소년을 위한 'helper'의 필요성 또한 재확인함.



### ○ 청소년 온라인 상담 우수 사례 '다 들어줄 개' 벤치마킹

#### □ '다 들어줄 개' 모바일 상담 플랫폼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 APP, 문자,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여러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 모바일 상담을 진행
-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청소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 플랫폼
- 전문상담 봉사자의 양성과정을 거친 후에 봉사자와 상담을 진행

□ '다 들어줄 개'의 전문상담봉사자 양성과정

- 온라인 교육과정  
(10차시로 이루어진 상담과 청소년 이해 등과 관련된 주제 집중 교육)
- 1박 2일 집중 워크숍 (실제 사례 실습과 연습)
- 온라인 사례회의  
(매주 진행되는 온라인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에 대한 이해도 증진)
- 오프라인 사례회의  
(매달 진행되는 오프라인 사례회의를 통해 깊이 있는 전략 습득)
- 자원봉사자 보수 교육  
(매달 진행되는 우수 교육을 통해 주제별 전문성 향상)
- 소진 방지 집단상담

• 전문상담 봉사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사례회의를 통한 실천 이해도를 높인 점이 우수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운영 중인 게시판 상담 사례를 통한 현황 및 문제점

1) 에브리타임

같은 대학교(원) 내 학생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일상 고민을 올리는 커뮤니티로 용도에 맞는 다양한 게시판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제별 고민을 올릴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 플랫폼임.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소속감을 통해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로, 이러한 게시판 상담 체제를 벤치마킹 하여 충청남도의 중, 고등학생이 이용 가능한 청소년 고민 상담 커뮤니티 앱'교환 일기' 개설을 도모하고자 함.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APP, 두 가지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간편하고 접근성이 훌륭한 앱을 통한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APP 체제를 활용하고자 함.

2)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내 사이버 상담 게시판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내 사이버 상담 게시판에 고민에 대한 질문을 올리면 담당 상담사가 답변을 올리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임, 질문을 올리는 글쓴이 이름이 실명 처리되어 비밀보장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불편함이 존재하며 홈페이지 운영으로 인한 접근성의 한계, 알림의 부재 등을 확인하여 도내 청소년의 활발한 소통을 도모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앱을 구축하고자 함.

유형	답변여부	공개여부	작성일자	작성일
고민	답변완료	비밀		2021-01-24
	답변완료	공개		2020-05-28
고민	답변완료	공개		2018-12-27
	답변완료	비밀		2017-11-09
	답변완료	공개		2015-11-07
	답변완료	비밀		2015-08-18

사업내용

○ 충청남도 고민 상담 익명 커뮤니티 앱(app) '교환 일기' 운영단 구축

□ 운영단 구축 진행 방향

-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을 위한 게시판 내 상담 운영단 구성
- 충청남도 지역 내 전문 인력 연계를 통한 전문적인 게시판 상담 시스템 구축
- 전문 인력과 '너에게 공감아'의 만남을 통해 전문적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피드백 진행
  - '너에게 공감아' 들은 주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역량증진을 도모함
- 전문 인력과 청소년이라는 두 가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아 다양한 해결책으로 접근
- 멘토 10명, '너에게 공감아' 20명 선발 (각 멘토 1명당 2명의 '너에게 공감아'를 배당하여 2인 1조로 활동을 진행)
- 모든 '너에게 공감아'에게 봉사시간 40시간을 부여, 활동비 300,000원 지급
- 멘토에게는 봉사시간 40시간 및 사례비 500,000원 지급

□ '너에게 공감아' 및 멘토 선정기준

- '너에게 공감아' 선정기준
  - 충청남도 내 거주 및 소재 기관에 재학 중인 만18세 이상 24세 이하 모든 청소년
  - 상담과 심리 분야에 관한 관심 및 이해도를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 과정을 통해 선발
    - 심리·상담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우선 선발
- 멘토 선정기준
  - 충청남도 상담 관련 분야 종사자 중 상담과 심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이해도를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 과정을 통해 선발 (솔리언 토레 상담 지도자 과정 이수자 우대)
  - \* 멘토 활동내용
    - '너에게 공감아'의 답변에 대한 피드백 진행 후 활동일지를 작성
    - 월 2회 '너에게 공감아'와 주기적 소통 진행

○ 충청남도 고민 상담 익명 커뮤니티 앱(app) '교환 일기' 운영

□ 운영 진행 방향

- 커뮤니티 게시판 상담의 형식으로 청소년들이 올린 익명 고민에 '너에게 공감아'들이 댓글을 달아 공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
- 도내 심리 상담센터 및 학급 wee-class와 연계하여 상담 예약 서비스를 마련.
- 학업, 가족, 친구, 건강, 일상, 성 등의 고민별 게시판 분류를 통해 효율적 시스템 구축.
- 자신의 감정을 나만의 공간에서 표현하는'나만의 감정 일기장' 카테고리 마련.
- '너에게 공감아' & 청소년들의 댓글과 질문에 신고 3회 이상 누적 시, 앱 이용에 제한을 두는 '삼진 아웃제'적용
- 청소년 주제 상담인 점을 들어 후속적인 전문상담과 연계해 수혜대상인 도내 청소년들의 공감과 지지가 주목적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함.

## ○ 충청남도 고민 상담 익명 커뮤니티 앱(app) '교환 일기' 운영 계획

<p>&lt;12월~1월&gt; 홍보 및 모집</p>	<p>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 공모전 운영 및 충청남도에 있는 청소년 기관과 도내 학교와 연계 홍보 '너에게 공감'을 모집하는 과정을 진행함.</p>
<p>&lt;1월~2월&gt; 선발 및 교육</p>	<p>선발 기준에 따른 '너에게 공감'을 선발하고, 활동 전 사전 교육 및 멘토와의 만남을 시행함. (상황에 따라 zoom 등의 온라인 미팅 방식 활용 가능)</p>
<p>&lt;3월~11월&gt; 활동 진행</p>	<p>커뮤니티 앱 실행을 통해, 매월 활동 진행 및 멘토와 피드백을 진행함. 월별보고 및 평가를 통해 더 나은 또래 게시판 상담의 형태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며 홍보 서포터즈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감.</p>

## ○ 충청남도 고민 상담 익명 커뮤니티 앱(app) '교환 일기' 홍보 계획

- 충청남도 교육청과 연계한 시·군·구 중·고 Wee 클래스 섭외 및 홍보
- 충청남도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홍보 진행
- 충청남도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연계해 학교 홈페이지에 홍보 글 게시
- 충청남도에 있는 청소년 관련 기관 SNS 계정을 통한 홍보 글 게시

## ○ 소요예산

### □ APP 제작 비용

- 앱 제작 : 약 1억 (앱 내부 디자인 포함)
- 앱 로고 디자인 : 공모전을 개최하여 선정된 디자인에 300만원 지급
- 앱 홍보 포스터 제작 : 공모전 개최하여 선정된 포스터에 300만원 지급

### □ 인력 소요 비용

- 멘토 10명 \* 50만 원 = 500만원
- '너에게 공감' 20명 \* 30만 원 = 600만원
- 홍보 도우미(서포터즈) 5명 \* 15만원 = 75만원

### □ 기타 비용

- 간식비, 장소 대관비

- 청소년 상담자라는 점에서 어른들과 다른 청소년의 시선에서 공감대를 형성
- 도내 학교 안 청소년뿐만 아닌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파악
- 익명 커뮤니티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비밀 유출 우려에 대한 걱정 감소
- 게시판 상담 운영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이나 도움의 기회로까지 연결
- 전문상담과 연계된 청소년들의 활동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지지 가능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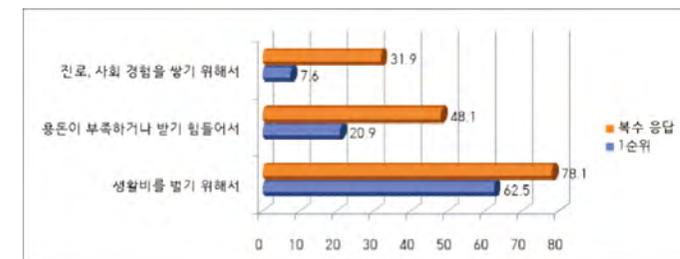
팀명	20th
팀원	박채연
제안명	청소년의 안전한 근로를 위한 '바론노동넷' 구축

## ○ 청소년 노동의 증가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8년 진행한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실태 조사'(이하 '실태 조사'라 칭함)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청소년 노동의 비율은 2011년 23.1%에서 2018년 26.2%로 3.1%p 증가하였음.

## ○ 청소년 노동의 필요성 증가

- 인권위원회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에 따르면 청소년의 노동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용돈을 받기 어렵거나 부족해서, 진로 및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등으로 청소년 노동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 청소년 또한 노동자로서 자신이 제공한 노동에 있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기에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

## ○ 현황 및 문제점

### □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짐.

- 근로기준법이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응답자 중 68%가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
- 아르바이트에 사용되는 용어(주휴수당, 사대보험)에 대한 업주들의 설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 근로 계약서 작성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이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 계약을 주로 함.
  -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필수 근로조건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26.1%에 불과함.
- 청소년의 경우 노동에 대해 부당 처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
  -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했던 청소년 중 사업장에서 부당처우를 경험한 비율은 37.5%로 나타남

## 기대효과

- 노동 도중 부당한 상황에 처하거나, 업주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 수궁하는 경우가 발생함.
    -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인 35.3%가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함.
  - 청소년근로권익위원회, 청소년근로보호 센터가 존재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알지 못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
- **청소년이 노동 업종을 선택할 때, 청소년과 성인의 채용 조건 차이를 인지하지 못함.**
- 청소년의 노동 시간, 노동 가능 업종,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성인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음.
  - 성인과 같은 구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불법 유해업소들이 업종을 밝히지 않고 청소년에게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상황이 발생함.
- **청소년 노동에 대한 시도 차원의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
- 만 13세 청소년 / 학령나이 중학교 1학년
  - 학교 밖 청소년 포함한 연령에 맞는 모든 청소년
    -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임에도 해당 연도에 만 13세가 도래되지 않거나 이미 지났을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사업내용

### ○ 청소년 전용 구인앱 '바론노동넷'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운영

- **충청남도 내 청소년 노동 가능 업소를 조사해 구인 광고 진행**
-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인증 후 어플리케이션 사용 가능
  - 유해 업소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 업소 제외한 구인 광고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진행
  - 어플리케이션은 도 자체에서 관리, 감독하고 광고 업체 또한 지자체에서 선정
  - 청소년이 구직을 성공해 근로 계약을 한 경우 업주와 노동 청소년의 확인 절차를 진행
  -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노동을 확인받고 인증을 한 경우 업소 평가 설문을 진행
- **어플리케이션 내 청소년 노동에 대한 온라인 교육 및 근로계약서 양식 제공**
- 인터넷 강의 및 청소년 노동 퀴즈를 통해 온라인 교육 진행
  - 근로계약서 샘플 양식을 제작해 근로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내용 명시
  -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와 제공해서는 안될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안내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한 업소를 지자체에 제보할 수 있는 페이지 제작
- **노동 분쟁 발생 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또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상담 연결**
- 기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상담 정보 및 부당 노동 신고 정보 제공

### ○ 지자체의 청소년 노동 우수 업소 선정 및 광고

- **근로계약을 한 청소년의 경우 업소 평가 설문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청소년 노동 우수 업소 선정 및 시상금 제공 (관내 거주 청소년 5000명 당 1 업소 선정 : 69곳, 시상금 : 100만원)**
- 우수업소 선정 기준은 청소년들이 노동한 사실이 입증된 후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행한 업소 평가 설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매년 정해진 수의 업소 선정

- 업소 선정은 1년에 1번 이루어지며 매년 청소년 노동 우수 업소 표창을 수여하고 청소년 노동 우수 업소로 지정하고 포상으로 시상금 100만원 제공
  - 노동 청소년의 업소 평가 설문을 조작하거나 평가 결과 청소년 노동 부당 착취의 정황이 포착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구적으로 청소년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을 고용할 계획이 있는 업소를 조사해 이를 어플리케이션에 광고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 ○ 어플리케이션 홍보

- **어플리케이션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충청남도 관내 중,고교 및 청소년 기관에 배포**
- 포스터에는 어플리케이션 QR코드를 포함함.
-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SNS 내에 청소년 기관 페이지, 비롯한 충청남도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 진행**

### ○ 소요예산

- **초기 비용 - 8000만원 - 앱 개발 운영비 8000만원**
- **고정 비용 - 매년 7000만원**
- 청소년 노동 우수 업소 지급 시상금 (청소년 5000명 당 한 업소, 100만원) 69업소, 총 6900만원(매년)

도시명	도시 내 청소년 수(명)	선정 우수 업소 수(업소)	필요 예산(만원)
천안시	124,272	25	2500
공주시	16,891	3	300
보령시	15,481	3	300
아산시	55,603	11	1100
서산시	29,816	6	600
논산시	18,519	3	300
계룡시	10,336	2	200
당진시	26,066	5	500
금산군	7,498	1	100
부여군	9,374	2	200
서천군	6,669	1	100
청양군	4,447	1	100
홍성군	16,443	3	300
예산군	10,893	2	200
태안군	8,358	1	100
합계		69 업소	6,900

- **어플리케이션 홍보 비용 100만원 (매년)**

## 기대효과

### ○ 사전 예방

- 청소년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고용주 및 청소년 대상)
- 필수 근로조건이 들어간 근로 계약서 작성을 도와 서면 계약 진행

### ○ 사후 처방

- 청소년에게 노동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할 방안 제시



팀명	자갈자갈
팀원	황주희, 김준서, 성연서, 이한민
제안명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 '아름드리 가게' 지정 사업

## 사업목적

### ○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단지 싼 노동력이 아닙니다.

- 부당 대우 인권침해 대응 실태(출처 : 청소년 노동인권 환경 '열악' (뉴스데스크 2021.1.12 광주MBC)
  - 해결 방법을 알지만 참고 일함 35.5%
  - 일을 그만 둬 30.1%
-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2017년 31.1%에서 2020년 47.9%로 증가했지만 부당대우 및 인권 침해를 경험한 비율이 23.9%에서 4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설이나 폭언이 28.5%로 가장 높았고,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 수령, 계약보다 적은 임금 수령 순으로 나타났다.(광주시교육청, 2020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 아르바이트도 교육적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 경제관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사회, 인생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의 경제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자립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직업계고등학교인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경우에 "학습근로자"로서 '근로자'와 '학생'의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소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도 '학생'이면서 '근로자'라는 특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 청소년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도 인건비가 부담스럽습니다.

- 매출 줄고 인건비 늘어...소상공인 '이중고' (매일경제, 2020.01.21.)
  - 소상공인 45% "매출 감소"
  - 31%는 인건비 60만원 늘어
-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는 역대 2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미만을 기록하였으며 소상공인(숙박음식업, 도소매 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에서 특히 높은 최저임금 미만을 보임. 따라서 이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소상공인연합회,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긴급 실태조사')
- 소상공인 고용주에게 특성화고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사 역할에 준하는 청소년 멘토의 역할을 요구하려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 청소년은 안전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천안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분석(중부매일, 2018.09.18.)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청소년이 46.6%에 달했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도 66.3%로 높게 나타났다.
- 성인 67% "청소년, 알바 찬성"... 내 아이 알바는 '글썸' (아주경제, 2021.02.10.)

- 강동구, 특색사업인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19개소 선정 (CBS노컷뉴스, 2021-08-17)
  -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근로환경 개선 위한 친화사업장, 5가지 인증기준 통과 해야할 정도로 엄격

충청남도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로 미디어를 통한 활발한 네트워킹을 강화 시켜 청소년들의 의사소통을 촉진

미디어 콘텐츠를 다양화 시켜 자발적인 지역 청소년 활동으로 연결 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장

도내 청소년활동을 트렌드에 맞춘 콘텐츠 제작과 접목하여 문화감성 활동 및 오락의 기회 제공

## ○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2014.12.)
  - 중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비율이 1학년의 경우 14.9%, 2학년의 경우 11.2%, 3학년의 경우 10.4%로 나타나, 학년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안선영 외, 2013)
  - 학교 청소년들이 가장 흔히 경험하는 아르바이트가 카운터 및 서빙(54.0%)이었고, 그 다음으로 전단지 돌리기(25.3%), 배달(7.5%), 건설·공장 노동(5.3%)의 순으로 나타났다.
  - 아직도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으나, 연소근로자에 해당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현장에서 쌓은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정책 방향 제언(2014.12.)
  -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청소년들이 노동자가 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고, 올바른 직업윤리의식 없이 낮은 책임감을 갖고 일을 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함.
  - 노동인권교육, 상담, 홍보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다양한 사업을 산발적으로 펼치면서 사업의 성과들이 하나로 체계적으로 모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함.
  - 노동인권교육이 이론에 치우치는 것은 교육적 효과가 높아지기 어려우므로 아르바이트나 일일 체험 등 현장 실습과 함께하는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21 소상공인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 [최저임금 9160원]소상공인 "대출·폐업 증가, 심각한 유감"(이데일리)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관련 입장,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처지" 업종·규모별 차등화 등 결정 구조 개편해야"
  - 숫자로 본 한국의 소상공인... "최저임금 또 인상되면 직격탄"(아시아경제)

- 최근 10년(2008~2017년) 간 창업자의 평균 고용인력은 상용근로자 0.5명, 임시·일용직 0.2명, 무급가족종사자 0.2명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 1명을 고용하는 셈이다.
-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도 매우 크게 느꼈다. 10명 중 8명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인식했다.
-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므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을 강하게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츰 키워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충청남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현황

- 충청남도 재정정보 지출현황(2021.07.18. 검색 결과)
  - 2018년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제작 대금 지급 (지출액 4,950,000원)
  - 2018년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교육 강사로 지급 (지출액 25,740원 외)
  - 2018년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교육 현수막 구입 (지출액 110,000원)
-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예산만 집행됨.
- 충청남도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충청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 노동교육 관련 지출이 대부분이며 청소년 아르바이트 친화 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는 서울 강동구와 광주광역시 정도입니다.

사업내용

○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사업장 '아름드리 가게' 선정

- 청소년(연소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아름드리 가게'로 선정하고 인건비를 지원함.
- '아름드리 가게' 인증마크는 충청남도 심벌마크의 의미와 이미지를 살려 제작 활용함. 아름드리나무 아래 청소년들이 믿음과 소통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표현함.



<아름드리 가게 인증마크>

- '아름드리 가게' 선정 기준(출처: 청소년 알바 친화가게 인증사업 추진계획)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인격적 대우 보장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당사자가 해당 사업장 추천

□ '아름드리 가게' 선정 과정(비대면으로 진행)

- 아르바이트생의 추천 → 사업주의 동의 → 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연합회 선정

□ '아름드리 가게'는 상·하반기 2차례 선정하며, 1개 사업장에 2명까지 지원함(최소 450개 사업장 선정)

□ 아름드리 가게 현판은 비용 절감과 다양한 위치에 부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크기의 스티커로 제작함.



<서울시 강동구 청소년친화사업장 현판>



<충청남도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아름드리가게 스티커>

○ '아름드리 가게'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

- 대상 : 연소근로자(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의 근로자)
  - 일반적으로 만 18세는 우리나라 나이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이후 생일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출처 : 일요서울)
- 금액 : 시간당 500원
  - 2022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440원(5.0%) 오른 것에 착안하여 올해 8,720원보다 인건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수준에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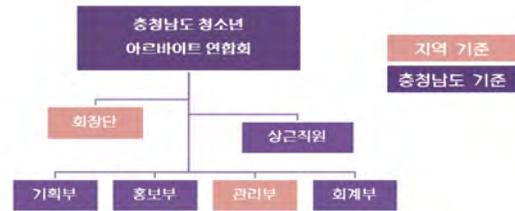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의 상생 모델

- 청소년(연소근로자)과 사업주 모두 만족도 설문 조사 작성
- '아름드리 가게' 운영 네이버 카페 개설(추후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신문고 운영, 비밀글 신고로 개인정보 보장
  - 사업주도 불만 사항 신고 및 이의 제기 기회 부여
  - 구인 구직 게시판 역할 수행
- '아름드리 가게' SNS 홍보를 통한 영업 이익 창출
  - 지속적인 관리 및 민원 처리
  - SNS 활용 인권 친화적 사장님 및 사업장 홍보
- '아름드리 가게' 선정 및 관리 주체
  - '아름드리 가게' 운영 청소년단체 지정
  - 청소년단체 내 상근직원 선발
  - 청소년단체 내 충청남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연합회 구성

## ○ 소요예산

### □ '아름드리 가게'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 사업(총 366,500천원)

- '아름드리 가게'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450개 사업장 기준)
  - 소요 예산 : 324,000천원(=2명\*450개\*500원\*15시간\*4주\*12개월)
  - 대상 선정 : 900명, 추정 아르바이트 청소년(9,642명)의 약 10%  
(산출 근거 :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학생수 116,167명(2021.03.05. 기준)와 15~19세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 8.3% 기준(2020 청소년 백서, 여성가족부)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 인구수 추정)
- '아름드리 가게' 행정 업무를 위한 인건비(상근직원)
  - 소요 예산 : 23,800천원(≈1명\*9,160원\*52시간\*4주\*12개월)
  - 상근직원 1명 : 재정 업무 및 민원 처리
  - 충청남도 지정 청소년단체 소속 채용
- '아름드리 가게' 네이버 카페 운영 및 홍보를 위한 활동비(충청남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연합회)
  - 소요 예산 : 12,400천원(≈4명\*9,160원\*7시간\*4주\*12개월)
  - 조직 및 운영 : 충청남도 지정 청소년단체 산하 조직, 네이버 카페 중심 네트워크 조직으로 운영
  - 부서 구성 : 기획부(네이버 카페 운영 및 행사 기획), 홍보부(SNS 홍보), 관리부(사업장 관리), 회계부(이벤트 운영)
  - 회장단 : 연합회 회장 및 지역대표(봉사직)



### □ '아름드리 가게' 홍보를 위한 이벤트 운영

- 소요 예산 : 4,800천원(≈10명\*10,000원\*4주\*12개월)
- '아름드리 가게' 후기 작성 이벤트(아르바이트생, 고용주, 손님 등) /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

### □ '아름드리 가게' 인증용 스티커 제작

- 소요 예산 : 1,500천원
- 가맹점 스티커 : 4,000장, 원형, 80\*80mm ~ 120mm\*120mm(크기별 제작), 블랙아웃 유포 용지, 무광



## 사업목적

팀명

아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빛솔

팀원

성민주, 권은혜, 천혜빈

제안명

충청남도 청소년 마일리지'CYM'

##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

### □ 선별적 지원의 한계와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 청소년은 성장과 더불어 책임있는 성년기에 대한 준비단계로서, 그 자체로 취약 계층이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실상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저소득 가정을 기준으로 하는 선별적인 복지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에 비해 보편적 복지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나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중위소득 50-100% 구간의 속한 가정의 청소년의 경우 정책적 후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0여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초중위소득'은 실질적으로 삭감되었다.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는 경기도 14개 시군에서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 용품 보편지급"을 지역화폐 바우처를 통해 21년 7월 1일부터 보편지급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래 이 정책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저소득 가정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으로 진행했으나 최근 보편지원으로 사업이 변경되었다. 이렇듯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패러다임 역시 조금씩 보편적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정책이 보호나 특별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중심의 선별적이고 사후대처 수준의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 □ 지역사회 경제 주체로서의 의식 향상

• 경기도에서는 '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을 만13~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는데 이는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서 주고 있다. 또한 경남 고성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 수당' 지원 사업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하였고 중학생은 월 5만원, 고교생은 7만원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1,975명의 청소년들이 8,726건 결제하였는데 이 가운데 39%가 서점에서 결제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음식점과 편의점(36%), 문구점(13%)순이었다. 주로 인터넷에서 책을 구입하던 청소년들이 카드를 받은 이후에 지역 서점에서 직접 구매해 도서 구입 비용 또한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바우처 카드 지급 이후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서점 주인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며 "꿈키움 바우처 카드가 청소년 개인뿐 아니라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경우 이와는 동떨어져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이며, 지역화폐 사용을 위한 계좌연동 및 카드발급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를 충청남도 청소년 마일리지와 연계하여 더불어 청소년의 지역화폐 인식을 향상 시키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청소년이 경제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음을 기대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기대효과

- '청소년(연소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 소상공인 경제적 지원 및 안정적 아르바이트 고용 지원
- 청소년(연소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및 학습권 보호

#### □ 청소년 마일리지를 통한 청소년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

- 마일리지의 적립 및 사용의 영역은 단순히 봉사활동, 교재 구입과 같은 교육적 요소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여가 활동을 위한 지원에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킨다. 김제군은 청소년 수당인 청소년 드림카드를 언급하며, 청소년의 문화, 체육 진로 분야에서 큰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본 정책 또한 주요 사용처인 청소년 활동시설, 지역내 관광지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적 요소에서 큰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볼거리를 마일리지를 통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지역정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청소년 시설 등 지역의 공공기관에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한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 현황 및 문제점

#### □ 청소년 복지 지원의 현실은 선별주의 위주

- 청소년을 위한 보편복지는 청소년증, 무상급식,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 용품 보편지급 등 보편화되고 있지만, 청소년에 직접 지급하는 정책은 미비하다.
- 광주지역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문화·진로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복지지원책으로 청소년통합복지카드를 제안했으며, 지난해 ‘광주청소년 10대 정책 제안 원탁 토론회’에서 1위로 선정되었다. 또한 2020년 김제시는 전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문화·체육 및 진로 개발등에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당인 ‘청소년 드림카드’를 지원하며, 타연령층에 대한 복지 혜택은 다양하지만, 양육비용이 가중되는 청소년층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점을 필요성으로 언급하였다. 해당 사업은 청소년을 위한 복지 사업으로, 이는 본 정책의 제안배경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청소년에게 연간 36만원의 마일리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자체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교보재 구입이나, 문화활동에서 이를 활용함으로써,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문화누리카드라는 비슷한 정책이 있지만, 이 또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연간 1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또한 특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어, 소득 인정액의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 중위소득 기준은 넘지만,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문화·여가·예술의 기회가 적다는 역차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 복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은 여전히 소외

- 최근 지자체 별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화폐를 활용한 기본소득 형태의 수당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지만 청소년은 그 혜택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
- 특히 청소년기는 교육비, 식비 등 많은 지출이 드는 시기로서,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의 입장에서는 양육비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의 기본 수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충청남도를 위한 투자이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보장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 최근 광명시에서 전국 최초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재난지원금’지급한다고 보도 하였으나, 이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일시금으로 실제로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닌 지역화폐로 세대주에 지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대상은 다소 다르지만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추진되었던 ‘어린이 용돈 수당’의 경우 해당 지역의 구의원들의 입법 반대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불발되었다.

-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와 여성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을 받았으나 여성용품 구입비의 경우 대상의 일부만 신청하며 지역화폐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성에도 의문이 생기고 있다.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충청남도 15개 시·군 소속 15~19세 청소년 (주민등록상)

### ○ 세부내용

- 충청남도 지역화폐(모바일)와 연계된 ‘청소년 마일리지’제도를 마련하여 충청남도의 청소년에 ‘청소년 수당’형태로 지급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따라 이를 추가 적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 대상 청소년에게 상반기 18만원, 하반기 18만원으로 연간 36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원하되, 청소년 개인에 직접 지급

#### □ 청소년 마일리지의 사용 영역: 교육적 요소 이외에 여가 활동을 포함

- 응급의약품(여성용품 포함), 교재 및 교구 등 교육 활동에 필요한 용품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 충청남도 내 지역 관광지 • 그 외 충청남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

#### □ 청소년 마일리지의 적립

- 지역의 주요 정책 사업 및 공공 영역에서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연간 2만원 이내로 적립 가능(ex: 주민참여예산 포인트)

### ○ 향후 발전 가능성

- 예산 규모와 지원의 당위성 여부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 가능
-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꿈나무 급식 카드와 연계 가능(저소득에 대한 낙인 해제)
- 지역 별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충남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과 연계 가능
- 지역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현재 구축 되어 있는 지역 화폐 시스템으로만 운영 가능, 이 경우 활동을 통한 적립은 어려움
- 충청남도 예산으로 자원 마련이 어려운 경우 시·군과 매칭을 통해 운영 가능

### ○ 소요예산

- 지역화폐 내 청소년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100,000,000원 (청소년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대신 지역화폐 활용 시 비예산)
- 연간 지원 예산: 1인 380,000원 × 100,000명 = 38,000,000,000원 (적립 가능액 포함, 충청남도 15~19세 청소년 인구 98,924명 - 21년 6월 기준)
- ※ 참고: 충청남도 예산 규모(20년 기준)  
전체 - 8조 7112억원, 복지분야 - 2조 4930억원

## 기대효과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의 확대를 통해 선별적 지원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복지의 보편성을 강조
- 지역화폐와 청소년 마일리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 주체로서의 의식 향상
- 청소년 마일리지 사용 및 적립을 통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활성화
- 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전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따른 청소년 복지 지원 체계의 마련
- 청소년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



## 사업목적

팀명	그린스타터
팀원	이광한, 백가은, 이서현
제안명	청소년환경위원회 설치

## ○ 충청남도 환경오염 및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 대두

- **충남 대기오염물질 배출 6년 연속 1위**
  - 충남은 지속적으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연속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 고수중.(출처: 금강일보, 대기오염물질 배출 1위 벗어날 길 없나)
- **충남교육청,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진행**
  -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이 학생들이 일상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2030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함. '2030'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실천으로 20년, 30년 뒤 미래에 행복한 지구환경을 물려주자는 의미를 내포함. 이에 김 교육감은 먼저 초중고 학생들이 실천하는 탄소중립학교 3.6.5 운동 전개 의지를 밝힘.
    - ※ 3.6.5 운동: 3가지 요소(전기 사용량, 쓰레기 배출량, 물 사용량)를 줄이고 6가지 요소(환경독서, 분리배출, 채식급식, 녹지공간, 착한 소비생활, 친환경 제품 사용)를 늘리고, 환경보호 5대 공통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실천

## ○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청소년

- **스웨덴에 청소년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 청소년은 어리다는 이유로 국가 정책 과정에서 배제될 수 없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짐. 스웨덴에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15살부터 학교를 결석하고 총선 기간 동안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임. 총선 이후로도 매주 금요일 학교를 빠지고 시위를 계속해 나갔고 이 시위는 세계적 기후 운동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로 이어짐. 청소년도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남김.
-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 청소년들**
  -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환경단체 '청소년 기후행동' 19명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함. 정부가 기후변화의 치명적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 미흡하게 대응한다는 근거를 들. 19명의 청소년들은 미래 시민으로서 안전하고 미래를 꿈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함. 이들과 같이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 **부산청소년환경위원회**
  -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적 실천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청소년 환경 전문가 양성 및 청소년과 관련된 환경정책의 발굴·제안을 통해 미래세대의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함. 본 정책제안서와는 다르게 교육청 산하에서 이루어짐. 현재 1기이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교육청에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 현황 및 문제점

### □ 도민으로서 환경에 대한 의견 제시 필요

-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견제시권 보장
  - 환경정책기본법(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 충청남도 환경기본 조례 제8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모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도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청소년환경정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자치조례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 1항: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 3항: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 □ 청소년들의 능력활용, 공통된 의견 및 일관된 환경의 필요

- 청소년들의 공통된 의견 수렴활동 필요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함께 모여 만나 의견을 모으도록 하는 활동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이 각각 이루어져있음.
- 많은 청소년들의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필요
  -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공감하여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야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부의 역할 및 활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활동을 많은 청소년들에게 제공해주기에는 학교에서 학생부에 배정한 예산 및 일정으로 인해 어려운 실정
- 청소년 세대들의 강점 활용 및 공간의 한계 극복
  - 청소년 세대들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 공간에 대해 더욱 친숙해짐. 다른 세대보다 미디어 사용이 활발하며 이를 기반으로 소통 및 캠페인 활동에서 강점을 보임. 상대적으로 이동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점 발휘와 공간의 제약 극복.

### □ 목적

- 청소년 환경위원회가 청소년을 충청남도 환경 정책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효능감 강화
- 청소년과 환경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 및 환경 시민 청소년으로서 참여 의식 강화와 권리 실현

### □ 수혜대상 및 인원

- 기후행동에 관심있고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
-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은 청소년
- 자연환경 문제 개선으로 좋은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도민
- 기후환경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 □ 제안내용 : 청소년환경위원회 설치

- 제안설명
  - 청소년 환경운동가 토티베리, 청소년 기후 행동 등과 같이 환경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활동이 증가했지만 정책 과정에 있어서의 참여는 전무한 상태
  - 지역사회 내의 환경 문제에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환경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된 환경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
  - 청소년환경위원회에게 워크숍을 통한 정책제안, 모니터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환경 정책 과정 참여
  - (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평가회(간담회)에서 청소년환경위원회 위원장에게 환경위원회의 의원자격을 부여하여 청소년이 환경 정책 과정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 제공
  - MZ세대의 강점과, 공간적 장점이 있는 메타버스, SNS와 같은 비대면 활동을 이용해 청소년의 관심 증진 및 환경 활동 활성화
  - 환경을 위한 비대면 참여형 행사(캠페인)을 기획하여 직접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할 수 있음
  - 청소년환경위원회에게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움
  - 청소년의 환경에 대한 입장 대변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도내 환경단체와 지방자치 단체의 자문을 통한 환경정책 개선에 도움

### • 정책실행방법

- 위원회 구성: 20인 내(당연직 14명 이내, 위촉직 6명 이내)  
: 충남 내 각 시, 군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대표 청소년을 당연직으로 위촉 및 도내 대학생 중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자를 위촉직으로 임명
- 대표 청소년 이외에 환경 정책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환경 교육 기회를 장려하기 위해 교육 영상을 녹화하여 유튜브 또는 사이트에 게시함
- 청소년환경정책위원장에게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부여하여 관련 회의 참여 및 자문을 제공하여 청소년에 적합한 환경정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환경에 대한 전문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음
- 위원회는 환경 정책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뒤, 도내 환경문제를 모니터링을 하여 환경정책에 관련된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함
- 모니터링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정책워크숍을 기획 및 운영하도록 함
- 도내 환경단체들은 청소년환경위원회에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활동 관련된 내용을 자문받도록 함
- 위원회는 도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캠페인을 진행함.
- 위원회는 매년 도내 환경 유관 기관 및 도지사와의 평가회 시간을 1회 이상 가지며, 평가회에서 활동 보고 및 환경정책에 대해 제안하고, 유관 기관 및 도지사는 반영 결과를 위원에게 회신해야 함.

연간일정			
3월	위원회 선발	9월	온라인을 이용한 환경 캠페인 기획
4월	위원회 위촉식(대면) 및 1·2차 환경 교육	10월	환경 캠페인 기획 및 정책제안서 작성
5월	3·4차 환경 교육	11월	환경 캠페인 진행
6월	5·6차 환경 교육	12월	평가회 - 모니터링 및 캠페인 결과 보고 - 환경정책제안
7~8월	도내 환경 정책 모니터링(대면), 환경정책제안 워크숍(대면)	1월	연간 활동에 대한 피드백 제출 및 다음기수 선발 준비

## ○ 사업예산

□ 금10,000,000(일천만원)

구분	소요예산	주요내용
위촉식	400,000	위원증 10,000원*20명=200,000원 식비 8,000원*20명=160,000원 운영비(문구 등) 40,000원*1식=40,000원
교육비	2,000,000	강사비 300,000원*6회=1,800,000원 자료제작 10,000원*20권=200,000원
정책워크숍	5,000,000	숙박비 50,000원*20명*2박=2,000,000원 강사비 300,000*4회=1,200,000원 식비 8,000원*20명*7식=1,120,000원 간식비 180,000원*1식=180,000원 운영비(보험, 구급약, 문구) 500,000원*1식=500,000원
캠페인비	1,500,000	온라인시스템이용비 300,000원*1회 운영비(문구 등) 200,000원*1회=200,000원 홍보비 1,000,000원*1회=1,000,000원
모니터링	800,000	활동비 20,000원*20명*1회=400,000원 운영비(쓰레기용품, 보험가입 등) 20,000원*20명=400,000원
평가회비	300,000	식비 8,000원*20명=160,000원 다과비 40,000원*1식=40,000원 자료제작 5,000원*20권=100,000원



## 사업목적

팀명

백순대

팀원

이유나, 김채영, 한서희, 신동은

제안명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123 안심순찰 프로젝트"

## ○ 정책제안법적근거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 5조(의견 제출)

도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4대 정책목표, 12개 중점과제, 144개 세부과제 >

## 기대효과

□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보호활동 운영가능

- 환경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있는 활동으로 운영
  - 청소년들이 정책 및 활동을 제안하고 원하는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치성 및 다양한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활동으로 운영가능
  -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는 만큼 청소년들의 공감대 형성 및 효능감 강화
  - 환경 정책에 대해 청소년들이 정책제안(개선점) 및 모니터링 등을 제안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활동으로 운영 (EX 모니터링으로 학교환경교육의 부족함 인지와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를 통해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제안)
- 다양한 청소년들의 의견 반영 가능
  - 다양한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 (다문화, 학교밖 등) 의견이 반영가능함

□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습득하는 청소년

- 환경문제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 및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습득가능
- 평가회 등을 통해 환경정책과정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역할을 이해가능

## ○ 추진배경

□ 충남지역의 범죄발생과 안전망 실패

※ 표 2- 2015년~2019년 충남의 범죄분야 안전등급

	2015	2016	2017	2018	2019
충남	3	3	3	3	3
권안시	4	4	4	4	4
공주시	2	1	1	2	3
보령시	3	4	3	2	2
아산시	3	3	3	4	4
서산시	2	2	2	3	3
논산시	2	3	3	3	3
계룡시	1	1	1	1	1
당진시	2	2	2	2	3
당산면	4	3	3	2	3
부여군	3	2	2	3	3
서천군	2	2	2	3	3
당진군	2	2	1	1	2
홍성군	4	3	4	3	4
예산군	4	4	4	3	4

※ 표 2- 3. 시군별 센터유형 관련 예산 구성비

구분	계	2018년도 예산 구성비						전년 대비 증감률
		CCTV 통합 운영/센터운영	자율방범대 운영/범죄예방센터운영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성 관련 범죄 방지/피해 지원	지역안전 프로그램/지역안전 운영	기타	
계천시	1000	89.0	9.3	-	0.9	0.9	-	3.17
충양군	1000	86.5	8.1	-	4.9	0.5	-	24.35
천안시	1000	74.1	2.3	3.8	19.6	0.3	-	13.01
태안군	1000	84.5	8.0	-	7.0	0.6	-	24.84

자료: 경찰청(2018. 6) www.kci.go.kr

오늘날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러 요소들에 의해 증가되고 있음은 확실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이후 사회적 분위기가 침체되었다는 여론이 우세하고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 범죄사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재난까지 한시도 우리는 불안요소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앞으로도 범죄와 같은 특정위해뿐만 아니라 자연위해까지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지 못함을 느끼는 상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많은 고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또한 시급하다. 2018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요소로 범죄발생(50.8%)이 가장 높았으며, 교통사고(47.6%), 신종 질병(42.8%), 정보 보안(42.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이 범죄발생을 사회의 주된 불안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에 대한 질문에서도 여성과 30대가 야간보행 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인적이 드물어서(51.3%)가 가장 많았고, 가로등의 부재(25.9%), CCTV의 부재(16.5%)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년 사회조사: 35-38). 이와 같이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가로등이나 CCTV 등 물리적 안전망의 부족이 국민들의 범죄두려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범죄예방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 안전망의 구축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범죄발생에 따른 물리적 안전망의 구축 정도를 분석해보면, CCTV의 경우 계룡시는 범죄분야 1등급답게 계룡지구대 내 1km<sup>2</sup> 당 5.1개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2등급 청양군의 경우 범죄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칠갑지구대의 경우 1km<sup>2</sup> 당 4.8개 설치되어 있다. 4등급 천안시와 5등급 태안군의 경우는 1km<sup>2</sup> 당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많아 부족한 CCTV가 오히려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발생에 용이한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어 범죄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다음으로 범죄발생에 따른 물리적 안전망의 구축 정도를 분석해보면, CCTV의 경우 계룡시는 범죄분야 1등급답게 계룡지구대 내 1km<sup>2</sup> 당 5.1개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2등급 청양군의 경우 범죄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칠갑지구대의 경우 1km<sup>2</sup> 당 4.8개 설치되어 있다. 4등급 천안시와 5등급 태안군의 경우는 1km<sup>2</sup> 당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많아 부족한 CCTV가 오히려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발생에 용이한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어 범죄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있어 여성이나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대처가 매우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안심구역 또한 천안 서북경찰서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이외에는 전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안심귀갓길 개소도 지역별 1개 이상 선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5등급 태안군의 경우 안심비상벨, 안심구역, 안심귀갓길 개소 등이 전무하여 이에 대한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 ▣ 깨진유리창 이론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간 나중엔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이 1982년 3월에 월간 아틀란틱[1]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s)'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다. 사소한 환경을 무시하다보면 더 큰 범죄나 총청남도 도민을 해칠 수 있는 상황적요인이 나타날 수 있기에 향후 더 큰문제를 미리 예방 해야한다.

## ○ 현황 및 문제점

### ▣ 중요한 지역사회의 문제 : 충남농촌지역의 범죄의 취약성

#### ■ 신고 어렵고·방법시설 적고...대처 더 어려운 농촌

졸음 여성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농촌은 성범죄 대처가 더 어렵습니다. 우선 공동체로 묶인 농촌 지역의 특성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올해 1월 펴낸 연구 보고서에서 농촌 주민들은 공동체가 깨지는 걸 두려워해 신고를 꺼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촌의 성범죄 검거율은 75%로, 도시 지역의 84%보다 낮습니다. 주민끼리 서로 잘 아는 사이가 많다는 점도 취약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미리 계획해 범행을 저지르기 쉬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농촌의 방법 시설이나 치안 자원은 부족합니다. 2019년 통계청 조사를 보면, 전국 농촌 3만 6천여 곳 가운데 방범용 CCTV가 있는 곳은 48%로 절반이 채 안 됐습니다. 실제 A씨의 마을에는 사건이 일어난 뒤에야 CCTV가 설치됐습니다.

농촌 마을 노인들을 위한 안전 대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노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기를 지급하는, '응급 안전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치는 않습니다. A씨가 살던 지역의 여성 홀몸 노인은 3천3백여 명이지만, 기기를 받은 노인은 20%에 불과한 6백40여 명뿐입니다. 소득 기준 등으로 지급 대상을 제한한 탓입니다.

#### • 꼭꼭 숨겨진 비상벨...불안한 '여성안심길'



전단지 등에 가려져 무용지물설치 안된 지역도 절반 넘어42%는 표지판 설치도 안돼 도입 6년넘었지만 관리 허술하며 실제로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여성안심귀갓길의 42.1%는 표지판 등 안내시설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위급상황 발생 시 가장 필요성이 높은 비상벨의 경우 미설치율이 절반이 넘었다. 방법시설 중 CCTV만 대부분의 여성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상황이다. 경찰청과 지자체 간 협업을 바탕으로 운영되지만 재정 부담은 대부분 지자체 몫인 탓이다. 국회 행안위 측은 "재정 사정에 따라 지자체가 책제방법시설 설치에 소극적임을 감안해 단가가 높더라도 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시설의 경우 경찰청이 설치를 주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충남지역내 비상벨 부족

연도	계	강력범죄	경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기타범죄
2015	1,961 (100%)	159 (8%)	483 (24%)	203 (10%)	315 (16%)	822 (41%)
2016	2,044	169	439	232	379	925
2017	2,081	138	531	211	446	755
2018	4,224	190	995	532	1,171	1,345
2019	4,528 (100%)	168 (4%)	1,063 (24%)	560 (13%)	1,311 (29%)	1,398 (31%)
합계	14,858 (6%)	823 (6%)	3,522 (24%)	1,758 (12%)	3,624 (24%)	5,131 (35%)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현황, 자료제공-박재호 의원실

공중화장실에서 강력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국 공중화장실 83%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절도범죄와 휴대폰 도난 등 지능범죄가 각각 24%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12%, 강력범죄는 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29%, 4267건)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22%, 3326건), 인천청(8%, 1146건), 경기북부청(6%, 877건) 부산청(6%, 870건) 순이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공중화장실 범죄가 65%에 달한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

충북과 경북 공중화장실 89%에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전남과 충남 역시 공중화장실 88%에 비상벨이 없었다.

계룡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충남전역 확대 (출처 : 충청일보(http://www.ccdailynews.com))

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시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IP비상벨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공원, 평리지하도를 비롯한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발생 가능지역, 안전취약지구 등 관내 108개소에 IP비상벨 시스템을 설치했다.

IP 비상벨시스템은 기존 설치된 방범용 CCTV시설물에 비상벨을 설치해 시민이 위험·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계룡시CCTV통합관제센터와 쌍방향 통화 가능한 응급통신수단을 제공한다.

계룡시CCTV통합관제센터는 CCTV를 통해 현장을 즉시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경찰, 119 등 관계기관에 연계하는 등 신속한 초동 대처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한다. 시는 홈페이지, 소식지, SNS 등을 통해 IP비상벨 위치와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시민들이 위급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중이다. 또 IP비상벨시스템의 방송 송출기능은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긴급 재난방송 등 계도 방송이나 산책로 음악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이와 함께 두마초등학교 정문, 천마산 등산로 입구 등 노후화로 화질이 떨어지고 고장 발생 빈도가 높은 방범용 노후 CCTV 14개소 17대(회전 12대, 고정 5대)를 고해상도 카메라로 교체했다. 아울러 시는 관내 안전취약지구 15개소에 30대를 신설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CCTV교체, 비상벨시스템 설치 등 다가적인 치안 플랫폼 구축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계룡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기간 : 2021. 7. ~ 2022. 7.

□ 대상 : 충청남도 관내 골목길 및 우범지역(범죄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도민

□ 제안내용 : 충청남도민들이 위급상황 및 위험상황에서 처했을 때 범죄 불안감을 낮출 수 있도록 셉테드, 응급벨등을 지역 내 우범지역에 의무 설치하고 대학생순찰단 지원

사업내용

□ 장애극복방안

- 충청남도 예산적 확보 및 충청남도 경찰청 협조 요청
- 충청남도 내 홍보활동

□ 정책실행방법

- CCTV 추가설치 및 셉테드 추가 설치
  - 권역별 큰길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CCTV 추가설치 및 셉테드 추가 설치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서의 이미지 개선
- 유관기관 및 경찰청, 관제센터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업무 협조
- 응급벨 경우 위험상황에 닥쳤을 때 응급벨을 눌러 위급상황을 알리는 정책
  - 응급벨 1번 누를시: 1번 누를시 벨이 크게 울려 위기상황을 알리는 벨이 울린다.
  - 응급벨 2번 누를시: 2번 누를 경우 관제센터나 관할 경찰서에 직접적인 위치알림이 통보
  - 응급벨 3번 누를시: 3번 울리게 되면 관제센터나 관할 경찰서, 순찰단과 통화가 가능
- 대학생 범죄예방프로그램 참여 확대
  - 충청남도 내 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대학교근처, 지역 내 우범지역 순찰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생 지역 순찰단 운영
  - 안내 예방 표지판 공모전 진행 후 선정 된 팀의 디자인을 충청남도에 사용

□ 소요예산

- 운영비 : 3,000,000,000원

품목	단가(원)	수량	금액(원)
응급벨	500,000	2,000개	1,000,000,000
셉테드	2,000,000	200개	400,000,000
순찰단	600,000	1,000명	600,000,000
CCTV	2,000,000	500개	1,000,000,000

기대효과

-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우범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에 범죄를 예방 할 수 있음
- 지역내 대학생들 범죄예방프로그램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도민으로서의 책임감 부여
- 여성, 남성, 노인, 청소년등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받음으로써 생활권 여건 확대
- 참여대학생의 전공활용 및 지역사회에 일원으로서의 역할 증대





팀명

스물넷

팀원

이유석, 우슬기, 강지수

제안명

균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 사업목적

### 1. 「청소년기본법」의 이념 실천

- 「청소년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음
-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하는 '학교'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 안전,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함.

###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

- 교육부가 제정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될 예정임
- 동 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필요성 대두

- 2019년 충청남도 의회에서는 대안교육기관 내 청소년들의 균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
- 당시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아 철회되었음
- 코로나 19 사태 이후 대안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 내 청소년들이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것이 드러나 필요성이 대두됨.

### 4. 대안교육기관 내 청소년들의 안전보장

- 2020년 3월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대안교육기관'도 조건부로 '청소년 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하지만, 2019년 교육부가 운영을 확인한 대안교육기관의 개소 수는 273개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은 전체 개소 중 절반에 못 미침
- 또한, 충청남도 학교안전공제회는 가입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지 않아 충청남도 내 대안교육기관은 가입할 수 없는 실정임
- 도 내 대안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학교안전공제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내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 ○ 현황 및 문제점

### 1. 충청남도 도내 대안교육기관 현황



[그림1] 충남 시군별 대안교육기관 학생 수



[그림2] 충남 단계별 대안교육기관 학생 수

- 2020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청남도 내 14개 대안교육기관에 1,426명의 청소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은 2,006명이며, 이 중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의 수는 1,426명으로 70%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현재 충남 내에서는 금산군과 공주시만이 군·시·시장 방침과 시·군 조례를 근거로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음.

### 2.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타 시·도의 조례 현황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 내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함
- 조례의 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건강지원,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함
- 2021년 충청남도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으나,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을 실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

### 3. 대안교육기관의 저조한 보험 가입률

-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인권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설문문에 응답한 44개 대안교육기관 중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43.4%로 나타났으며, 어떠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시설의 비율은 20.8%로 나타남
- 충청남도 학교안전공제회는 가입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들은 안전사고에 노출돼있는 상황임.

## □ 문제점

### 1. 대안교육기관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제약

- 대안교육기관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없어 학교운영에 관한 경비 대부분을 학생들의 교육비에 의존하는 상황임
- 열악한 재정은 교사들의 임금과 신규 교사의 채용에 악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 이는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가능성을 추구하도록 기회를 마련한다는 대안교육기관들의 목표 지향을 방해함과 동시에 '대안'을 찾아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된 현재, 도 차원에서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2.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대안교육기관 내 청소년들

-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동으로 학교안전공제에 가입되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치료에 소모된 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충남 도내의 대안교육기관들은 충남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없고, 대안교육기관 자체적으로도 상해보험에 가입한 대안교육기관의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절반이 넘는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들이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이는 안정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학생들이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사업내용

### ○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대안교육”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으로 정의함.
- “대안교육기관”을 제2조 제1호의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으로 정의함.

#### 나.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함.

#### 다.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안 제5조)

-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라. 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및 지원(안 제6조~제7조)

- 대안교육기관의 신고 관련 사항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

#### 마. 대안교육기관 안전공제 가입 지원(안 제8조)

- 대안교육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보상을 위한 안전공제 가입 지원

\* 부록의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참조

\* 2019년도에 발의되었던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함

### ○ 주요 사업내용

#### 가. 직접 지원 사업

##### (1) 수업료·교과서비·급식비

- 수업료 : 도 내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이 납부하는 수업료를 일반학교 수준으로 지원
- 교과서비 : 도 내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이 부담하는 교과서비를 일반학교 수준으로 지원
- 급식비 : 도 내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에게 무상급식 지원

#### 나. 운영비 지원 사업

##### (1) 학교운영비·교사인건비

- 학교운영지원비 : 도 내 대안교육기관에 일반학교 수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교사인건비 : 도 내 대안교육기관에 기관별 1명의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 다. 학생안전보장 사업

##### (1) 학교안전공제 가입 지원

- 학교안전공제 가입 지원 : 도 내 대안교육기관들의 학교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 ○ 소요예산

\* 도 내 운영이 확인된 14개의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신고필증(안 제6조)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함

### ○ 총 소요예산 : 3,345,630천원

#### □ 수업료 : 1,219,230천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수업료 지원 산출단가 855천원\*1,426명 = 1,219,230천원

#### □ 학교운영지원비 : 399,280천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운영비 지원 산출단가 280천원\*1,426명 = 399,280천원

#### □ 교과서비 : 142,600천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과서비 지원 산출단가 100천원\*1,426명 = 142,600천원

#### □ 급식비 : 1,219,230천원

- 190일\*1식\*4500원\*1,426명 = 1,219,230천원

#### □ 인건비 : 352,870천원

- 월 2,100,450원(충남 생활임금 고시)\*12개월\*14개교 = 352,870천원

#### □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지원 : 12,420천원

- (충청남도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비) 유치(2,300원\*9명)+초등(4,000원\*207명)+중학(8,500원\*545명)+고교(10,500원\*647명) = 12,420천원

\* 2019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작성함.

\* [그림1] '기타'에 속한 18명 청소년들은 중학생 연령으로 기준을 잡아 예산을 책정함.

## 기대효과

-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차별을 배제함으로써 「청소년기본법」의 이념 실천
-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안교육기관 내 청소년들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균등한 학습권 보장
-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내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활성화
- 대안교육기관들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내 청소년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보장



팀명

충남방법대

팀원

권수진, 조서연, 전하늘, 박희진

제안명

바닥에서 불빛이 난다? [바닥 신호등]

### 사업목적

#### ○ 휴대폰 사용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수 줄이기

- 신호등을 잘 보고 건너지 않는 어린이(스몸비)들의 교통사고를 줄일수 있다.
- 안개가 심하게 끼었을 때 같이 멀리 있는 신호등을 보기 힘들 때 보기 편하다. (+밤에 운전하는 운전자들)
  - 추진하게 되면 바닥 신호등을 통해 휴대폰 사용으로인한 교통사고의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미 바닥 신호등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 둔산 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대전 시민들이 바닥 신호등에 만족하고 있다.(출처:대전광역시 서구청 블로그-박예지 기자)

#### ○ 현황 및 문제점

##### □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61%로 제일 많다
- 부주의를 일으키는 주범은 스마트폰
  - 보행자 스마트폰 교통사고 2016년에는 148건, 2017년에는 177건, 2018년에는 192건, 2019년에는 225건으로 스마트폰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해상)
  - 등하교 시 스마트폰 사용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이 62.0%에 달했다. (출처: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 도보 중 스마트폰을 사용해본적 있는 성인이 95.7%에 달할 만큼 많다.
  - 도보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청각 능력은 평균 50% 떨어 트리고 시야는 10% 정도로 좁아진다(부주의 발생확률 증가) (출처: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 사업내용

#### ○ 사업내용

##### □ 바닥 신호등(LED) 보편화 하기

- 충남 초등학교(414곳)를 중심으로 25곳에 설치
  - ex)대전초, 서산 부춘초 근처 경찰서앞 사거리, 천안호수초, 당진 탑동초 근처 탑동 교차로 사거리
  - 신호등을 보기 힘든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소요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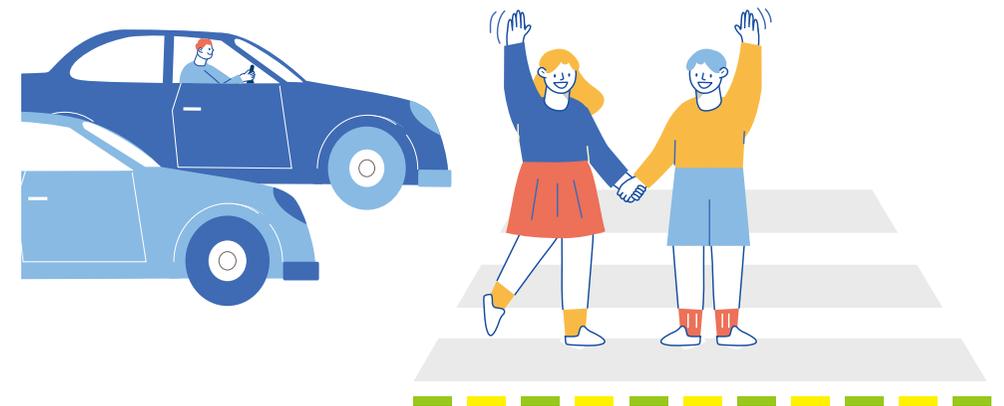
##### □ 충남 초등학교(414곳)를 중심으로 25곳에 설치

- 25개의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25000~5000 (개당 약 1~2천만원 참고:서울특별시 참여예산 바닥신호등 가격)
- 다른 정책들보다 저렴하다.
  - 홍보비, 운영비등 부가적인것에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 인세비, 대관비는 따로 필요하지 않아 다른 정책에 비해 저렴하다.
  - 유지비용이 저렴하다(블록 20개 기준-670원)
  - 개별블록 교체가능하여 보수비용이 적다

### 기대효과

##### □ 바닥 신호등 보편화로 교통사고의 양을 줄일수 있다.

- 바닥 신호등의 장점이 많다.
- 모든 연령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스몸비족의 교통사고의 양을 줄일 수 있다.
  - 기존의 점자블록을 대체하여 토목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 수명이 긴 led를 사용한다.
  - 점자블록을 활용하여 장애인, 저시력자에게 도움
  -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수있다.
  - 운전자가 원거리에서도 횡단보도를 감지할수있다.(농어촌 어두운 도로에서도 위치감지) (출처:회사 시그널원 홈페이지)



# IV 에필로그

## 활동소감

### Q. 정책제안대회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고말] 한지수

“도내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로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행복이 증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파] 장소연

“본교에서 진행되었던 정책제안 활동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 계기로 충청남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해보고자, 직접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보완할 해결 방안을 제안하여 더 나은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Q. 정책제안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억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스물넷] 우슬기

“처음 주제를 정할 때,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과 섞어 제안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함께 논의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배고파] 장소연

“자료조사를 진행할 때 원하는 자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컨설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었고, 자료조사뿐만이 아니라 보고서 작성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성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Q. 정책제안대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참가소감)

[충남방법대] 전하늘

“정책제안대회를 준비하면서 팀원들과 협동하여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갖을 수 있어 좋았고, 큰 무대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처음이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백순대] 이유나

“정책제안대회 이전에는 청소년으로서 정책제안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불편했던 요즘 사회의 불안요소를 저희가 제안한다는 것만으로도 뜻깊었습니다. 또한, 이번 제안으로 응급안전비상벨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소들과 불편한 요소들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 Q. 청소년에게 사회참여활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또래 청소년 또는 지역사회 성인 분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나요?

[채우다] 남유진

“청소년들이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다는 점이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충남 인재로 성장할 기회인 것 같습니다.”

[20th] 박채연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으로서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분들도 청소년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Q. 앞으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및 충청남도에 바라는점은?

[아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빛솔] 성민주

“충청남도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20th] 박채연

“청소년 정책을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하고, 대회가 매년 운영되어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Q.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은?

[충남방법대] 박희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준비기간을 거쳐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접해보고 알리는 시간들이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저희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셧비의 심가성을 다시 알리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발표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심사위원분들의 의견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린스타터] 이서현

“제가 제안한 정책이 꼭 반영되어 충청남도의 좋은 환경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사진

○ 사업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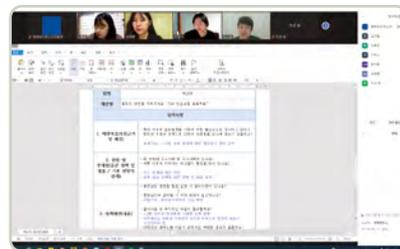


▲ 설명회 라이브



▲ 설명회 유튜브 촬영 현장

○ 청소년정책개발워크숍



▲ 팀별 온라인 전문가 컨설팅

○ 청소년정책제안대회 결선



▲ 내빈 인사말씀



▲ 팀별 발표



▲ 정책제안대회 모니터링 결과 발표



▲ 팀별 인터뷰



▲ 시상



▲ 단체사진

2021

## 충청남도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

인 쇄 2021년 11월

발 행 2021년 11월

발행처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 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4층

문 의 041) 562-9003 [www.cnyouth.or.kr](http://www.cnyouth.or.kr)

---